

중국 산동성의 인구이동과 그 사회경제적 의미*

권태환**

이 연구는 중국 산동성을 배경으로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의 연관성을 인구이동의 전반적인 추세와 유형을 통해 살피고 있다. 여기서 주로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중국의 공식자료이다. 특히 인구이동의 경우 센서스와 호구자료로부터 집계된 공식자료의 완전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는 이동의 전반적인 흐름과 유형의 파악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 전체와 산동성을 비교하면서 신중국에서 나타난 사회변동과 인구변동의 양상을 개괄하고, 다음 1970년 이후의 인구이동 추세를 산동성의 발전과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다. 한편 인구이동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간접적으로 살피기 위해 인구 이동의 구체적인 양상, 가령 이동의 지역적 차별성, 이동의 이유, 이동자의 인구학적 내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고찰을 1990년 센서스 자료를 중심으로 행하고 있다.

1. 머리말

인구변동은 사회변동의 요인인 동시에 사회변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서구 사회에서는 인구와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동은 거의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개발도상사회는 다르다. 선진국에서 도입된 좋은 의약품, 특히 항생제의 대량 유통으로 사회경제적인 상태와는 관계없이 사망력이 떨어지고

*이 연구는 1996-97년 2년간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해외지역연구 공동과제의 일부로 행한 것이다. 공식통계 자료의 수집에는 이근 교수의 협조가 컸으며 자료의 이면을 읽어내는 작업에는 김광익 교수의 도움이 컸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연구원장. 주요관심분야는 인구학, 환경사회학, 도시사회학 등이다. 주요 저서로 《인구의 이해》(1990), 《한국인의 생명표》(1990), 《한국의 가족과 가족유형》(1993) 등이 있다(연락처: 02-880-6404, E-mail: thkwon@prom.snu.ac.kr).

따라서 인구가 빨리 증가하는 현상이 이들 사회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빠른 인구증가는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인구증가는 식량부족을 가져왔고, 사회적으로 빈곤을 만연시켰다. 특히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면서 발전이 수반되지 않은 도시화가 또는 빈민지역의 팽창에 따른 도시화가 발생하는 현상이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택한 개발도상사회가 경험한 바다. 중국도 신중국 건설이후 빠른 인구증가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였고, 철저한 호구통제를 통해 인구의 이동을 제한해 도시화의 속도는 매우 느렸고, 특히 빈곤 도시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구문제는 많은 인구, 빨리 늘어나는 인구를 어떻게 먹이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느냐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인구증가에 관한 정책도 그 사회의 구성원의 요구나 인구이론 보다는 사회주의의 이념과 정치적 투쟁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결과 인구증가 억제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까지 인구억제의 관념은 부정되었다. 그러다가 인구의 빠른 증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갑자기 매우 강력한 산아제한 억제정책이 채택된다. 이 정책은 각각의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지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급속한 출산력의 저하를 가져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정책은 중국 사회에는 물론 개별 지역사회에도 엄청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제도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가 요구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국에서는 1자녀 정책으로 대표되는 가족계획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이미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¹⁾ 관심은 거의가 주어진 목표의 달성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출산에 관한 모든 자료는 거의 정책의 의도대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변화의 연관성에

1) 가령 우리가 현지조사차 방문한 어떤 농촌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모두 남자 아이만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러냐고 묻자, 당황해 풍수가 좋아 그런 모양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아마도 여자 아이의 출생이 보고 되지 않았거나 여자 아이의 영아 사망을 유도한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 논의에서 출산력에 대한 문제는, 적어도 현대 중국에 있어서는 다루기 어렵거나 적절치 못한 주제로 판단된다.

인구이동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현대화 정책과 그간의 인구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농촌의 과잉인구, 가족계획으로 인한 소가족의 보편화의 현상 등을 고려 할 때, 대량 인구이동 흐름의 형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인구이동은 사회경제발전의 결과인 동시에 그 추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이동이 지역적 발전과 기회의 격차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따라서 사회변동이나 경제발전에 관한 논의, 이와 관련된 지역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논의에 인구이동에 대한 고찰은 필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 인구이동에 관한 포괄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해 인구이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은 어렵다. 또한 현지조사에서도 실질적인 유동인구의 파악은 불가능하다. 이동인구의 전체 규모에 비해 자료를 통해 파악되는 규모는 상당히 작을 것이다. 특히 인구이동이 심한 곳, 대도시에서는 그 차이가 더 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인구센서스와 호구 자료를 통해 인구이동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 공식 자료는 과소 보고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밝히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제발전과 관련된 산동성의 지역격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분야로서 인구이동에 관해 살피고자 한다.²⁾ 먼저 배경 논의로서 사회변동과 인구변동을 개괄하고, 인구이동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추세를 살핀 후에 이동의 지역별 차별성, 이동의 이유, 이동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인구이동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간접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2. 산동성 인구추세

산동성은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주의 하나로 꼽힌다. 1993

2) 원래 산동성에서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서북지방의 료성(聊城)지구와 발달지역의 대표인 동부연안의 위해(威海) 지역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인구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경험하였다. 산동성의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김광익(1998)과 이근(1998)을 참조할 것.

〈표 1〉 산동성과 중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1954-93

	산동	중국
1954-60	0.95	1.90
1961-65	1.15	1.42
1966-70	2.32	2.64
1971-75	1.72	2.34
1976-80	0.96	1.38
1981-85	1.08	1.17
1986-90	1.81	1.81
1991-93	0.85	1.20

자료: 장아아(1995: 5 & 20); 윤화·임효홍(1996: 8 & 20)에서 계산.

년 말 현재 산동성의 총인구는 8,642만 명으로 1억 1,100만 명의 사천성, 8,950만 명의 하남성 다음으로 큰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이 강소성의 6,967만 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인구밀도는 매 평방 Km당 551명으로 상해 북경, 천진과 같은 거대도시권을 제외하고는 강소성의 679명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신중국 형성 직후라고 볼 수 있는 1954년 산동성은 인구수가 5,048만 명에 이르러 6,600만 명의 사천성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사는 지역이었다(庄亞兒, 1995: 6-34). 이러한 인구수는 과거 산동성이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또는 발달된 지역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54년부터 1993년에 이르는 기간 산동성의 인구증가 속도는 중국전체의 증가 속도에 크게 뒤진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90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간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1954-60년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수준의 50%에 머물고 있다. 한편 1970년대에는 약 70%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인구증가율의 차이는 크게 보아 2가지 요인에 의해 야기된다. 그 하나가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의 차이를 뜻하는 자연증가율의 차이이고, 다음이 인구의 이동이다. 흔히 산업화 과정의 도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입인구 또는 유입인구가 이출인구 또는 유출인구보다 많으면 인구는 빨리 증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이외에 인구조사의 완전성의 차별적인 변화도 상대적 인구성장의 추세에 영향을 준다. 가령 예전에는 중국 전체의 인구조사 완전성이 산동성에 비해 매우 낮았는데 최근에는 비슷해 졌다고 하면, 실제 둘 사이에 인구증가 속

도의 차이가 없었더라도 조사자료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빠른 인구증가를 나타낸다. 그러나 조사의 완전성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평가는 중국의 경우 매우 어렵다. 한편 중국은 적어도 1970년대 말까지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성격이 강했고 산동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보통 도시 농촌 사이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자연증가율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인구증가 속도의 차이는 특별히 어떤 지역에 사망률의 상승이 없는 한 주로 인구가동에 의해 설명된다.

물론 중국에서는 신중국 건설이후 비교적 빠른 인구증가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아마도 근대화 없이 발생하는 사회분배체계의 개선과 새로운 의료 및 약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1960년대 이후 시장경제체제하에 있었던 개발도상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현상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빠른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이 1955년 처음으로 채택되어 1958년까지 실시되었으나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사회주의 원리와 인구억제 사이의 이념적인 괴리로 1958년에 산아제한 정책은 포기되었다. 한편 1960년과 1961년 전국적인 흉작과 소련과의 분쟁으로 식량수급이 어려워 기근으로 사망률이 크게 상승하고, 그 결과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다시 1962년에 어려운 경제상태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산아제한은 다시 추진되었으나, 인구에 관한 논의는 1966년 문화혁명의 시작과 함께 다시 사라지게 되었다(Liu & others, 1981: 36-38; Banister, 1987: 147-151). 이러한 와중에서 중국은 1963-72년의 10년 사이에 엄청난 인구증가를 겪게 된다. 그리고 다시 1970년에 인구억제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효과는 1973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이 1970년대 말에 채택되면서 중국의 출산수준은 급격한 저하를 기록한다. 한 자녀 정책은 중국 사회와 가족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켰고, 이를 부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중국은 1985년과 1986년에 농촌의 한쪽에게는 첫아이가 딸인 경우 한 자녀를 더 허용하고, 소수민족은 두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가족계획 정책을 수정하였다(한상복·권태환, 1993: 70).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출산률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산동성의 경우 이미 신중국 형성 당시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인구압력이 높았다. 그러나 이것이 출산력 저하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그것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출산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널리 보급되지도 못했고, 정부에서도 피임법을 보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0년 자료에 따르면,

〈표 2〉 산동성과 중국의 사회경제적 지표

(가) 산동성

연도	단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총인구*	만명	6,441	6,971	7,296	7,695	8,424	8,642
인구밀도					542	551	
조출생률	%	3.39	2.16	1.39	1.18	1.82	1.05
이전 5년 평균	%		2.46	1.66	1.42	1.74	1.24
조사망률	%	0.73	0.75	0.64	0.59	0.70	0.68
이전 5년 평균	%		0.74	0.68	0.61	0.60	0.67
자연증가률	%	2.66	1.41	0.75	0.59	0.37	3.71
이전 5년 평균	%		1.72	0.98	0.82	1.15	0.57
총출산률	%	5.92	3.04	1.74	1.91	2.11	
이전 5년 평균	%		4.02	2.28	2.10	2.40	
성진인구비율	%	7.47	12.84	14.12	53.14	65.06	
국민평균수입	웬	170	212	346	718	1362	2640
국민평균소비	웬	106	125	217	376	681	1052
농민평균수입	웬			194.33	408.12	680.18	952.74
순이입률	%	0.11	-0.03	0.03	0.16		0.07
이전 5년 평균	%		-1.29	-0.1	0.12		
대학생수	만명당				10.86	12.71	17.59
성비	여100	101.28	102.23	102.55	103.95	104.22	101.34
제3산업비율	%			16.14	18.24	20.62	29.60
의원변상수	만개		8.58	11.71	13.36	15.96	19.5
위생기술인	만명				20.51	24.11	25.80
아동입학률	%				97.4	98.6	98.65
총국민수입	억웬	109.44	147.44	252.17	556.15	1147.48	2284.30
인평균경지면적	무					1.22	1.17
산림률	%					17.00	17.10
직공인수	만인	194.27	255.84	497.41	601.94	753.51	857.10
직공연평균임금	웬	564	585	745	1110	2150	3149

(나) 중국

연도	단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조출생률	%	3.34	2.31	1.82	2.10	2.16	1.81
성진인구비율	%	17.38	17.34	19.39	23.71	26.41	28.14
국민평균수입	웬	235	273	376	668	1267	2111
농민평균수입	웬			191	398	686	922
대학생수	만명당			11.60	16.10	18.04	21.40
제3산업비율	%			20.60	24.80	28.00	27.00

자료: 윤화·임효홍(1995: 13-103)

〈표 3〉 산동성의 인구성장률 및 각종 인구이동률

(가) 호구자료, 1954-94

연도	인구성장률	이입률	이출률	순이입률
1954		3.25	3.27	-0.03
1955	2.82	3.40	3.22	0.17
1956	1.26	3.28	4.31	-1.03
1957	2.74	3.18	3.23	-0.05
1958	0.39	3.14	3.46	-0.32
1959	0.66	2.88	4.06	-1.18
1960	-2.18	3.53	5.67	-2.14
1961	-0.77	2.24	1.89	0.35
1962	1.91	2.97	2.20	0.76
1963	2.56	1.28	1.60	-0.32
1964	0.54	1.40	2.10	-0.70
1965	1.50	1.38	2.01	-0.63
1966	2.15	1.35	1.39	-0.04
1967	1.70	1.17	2.41	-1.25
1968	1.98	1.37	0.80	0.57
1969	2.92	1.41	0.94	0.48
1970	2.83	1.38	1.27	0.11
1971	2.36	1.29	1.45	-0.16
1972	1.84	0.99	1.28	-0.30
1973	1.68	0.97	0.97	0.00
1974	1.42	0.88	1.04	-0.16
1975	1.30	1.52	1.55	-0.03
1976	1.16	1.46	1.58	-0.12
1977	0.90	1.25	1.38	-0.13
1978	0.86	1.71	1.91	-0.20
1979	0.93	1.57	1.65	-0.08
1980	0.95	1.79	1.76	0.03
1981	1.12	1.69	1.65	0.04
1982	1.34	1.70	1.58	0.12
1983	1.13	1.15	1.01	0.14
1984	0.94	1.46	1.27	0.20
1985	0.86	1.31	1.15	0.16
1986	0.90	1.28	1.12	0.16
1987	1.25	1.67	1.43	0.24
1992	1.77	1.18	1.16	0.03
1993	0.50	1.31	1.24	0.07
1994	0.42	1.41	1.39	0.04

자료: 〈표 1〉과 같음.

(나) 1990년 센서스에 나타난 1985년과 1990년의 거주지 이동

	총인구	이입자	이출자	순이입자	성내이동자
합계	79,329,211	609,432	524,842	84,590	1,190,017
남자	40,474,819	287,962	346,917	-58,955	660,565
여자	38,854,392	321,470	187,925	133,545	529,452
		이입률	이출률	순이입률	성내이동률
합계		0.15	0.13	0.02	0.30
남자		0.14	0.17	-0.03	0.33
여자		0.17	0.10	0.07	0.27

자료: 장아아(1995: 제2장)

조출생률을 100명의 인구당 1년간의 출생자로 계산하면 산동성과 중국전체는 3.39와 3.34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조사망률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증가율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인구정책이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인구압력이 높은 산동성에서는 출산력이 전국수준에 비해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가령 현재의 조건에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말하는 총출산률을 보면 1970년 5.92명을 보이던 산동성은 1980년에는 1.74명으로 그 수준이 30% 이하로 줄고 있다. 한편 전국의 수치는 각각 5.75와 2.26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산동성과 중국 전체와의 차이가 다시 줄어들어 현상을 보인다. 같은 현상을 조출생률의 추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단 조출생률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다시 차이가 급속히 확대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반면 사망률은 전국수준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찰에 따르면, 적어도 산동성과 중국 전체 사이의 인구의 자연증가 수준의 차이는 1970년 이후에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1970년 이전 산동성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인구증가율은 인구압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입인구에 비해 훨씬 많은 이출인구의 존재로밖에 설명이 어렵다. 실제 산동성의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표 3>에 실린 바와 같이, 1970년대 말까지 성을 떠난 이출인구가 외부에서 성으로 들어온 이입인구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980년부터는 거꾸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입인구가 이출인구를 초과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3. 사회변동과 인구이동

어떤 지역의 인구이동의 규모와 방향은 전체 사회에서 그 지역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발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현상은 산둥성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산둥성은 1980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전체수준에 비해 생활정도나 산업화의 정도에 있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다. 가령 1970년 자료에 의하면 중국 전체의 도시인구³⁾의 비율이 17.3%였는데 비해 산둥성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5%에 불과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평균 수입은 전국 평균이 235원인데 비해 산둥성은 170원이었다. 그 후 전국 수준과의 거리는 지속적으로 좁혀졌지만, 1980년까지 산둥성의 생활수준과 산업화수준은 전국의 평균을 밑돌았다.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산둥성은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였다. 1985년 전국의 도시인구 비율이 19.4%인데 비해 산둥성의 도시인구 비율은 53.1%로 꺾충 뛰었다. 1인당 평균수입도 전국의 668원을 넘는 718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아직도 인구 만 명당 대학생수는 12.7명으로 전국 수준 19.0명에 크게 미달하고, 3차산업의 비중도 18.2%로 전국 24.9%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3차산업 비중은 1993년에 이르러 29.6%로 전국의 27.0%를 상회하였다. 한마디로 1980년 이후 산둥성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와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룩하였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이동의 추세를 보면 1980년 이후 다른 곳으로부터 산둥성으로의 이입자의 수는 별 변동이 없으나 산둥성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출자의 수는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된 순이입자의 수는 1975-79년의 5년 사이에 -40만 명에서 1980-84년의 5년 기간에는 39만 명으로 바뀌어 이 두 기간에 약 79만 명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85-87년의 3년 기간에는 다시 42만 명의 순이입자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규모로 볼 때 별로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로 보아 신고되지 않은 민공조(유동인구 또는 맹류)를 포함하면 산둥성의 순이입인구의 규모는 상당히 커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3) 여기에는 진(鎭)인구가 포함됨.

공식 신고자료에 의하면 1992년에서 1994년에 이르는 3년의 기간에 인구이동에 의한 인구의 증가는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를 기초로 판단할 때 1980년 이후 산동성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일차적으로 성에 호구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의 다른 성이나 거대도시로의 이동을 줄이는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김광역, 1998 참조). 대신 도시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로 야기되는 젊은 노동력의 이동은 그 대부분이 성내 노동력 이동에 의해 충당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1990년 센서스에 보고된 1985년 거주지와 1990년 거주지의 차이를 가지고 파악한 인구이동자료, 즉 두 시점사이의 거주지역⁴⁾이 다른 경우를 보면 성을 넘는 이입자나 이출자 보다 성내 이동의 규모가 훨씬 크다(〈표 3-나〉 참조). 다른 곳으로부터의 이입자의 약 배, 산동성으로부터의 이출자의 배 이상이 성내 이동자로 파악되었다. 한가지 센서스 자료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입자와 이출자의 파악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이다.⁵⁾

문제는 있지만 센서스의 5년간 거주지에서 파악되는 인구이동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는 살필 수 없는 여러 가지 인구이동 유형에 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한다. 낮은 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센서스를 통한 인구이동의 파악이 많은 나라에서 지속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자료를 이용해 다른 곳에서 산동성으로 들어온 이입자들과 산동성에서 다른 곳으로 나간 이출자들의 성(省)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 〈표 4〉이다. 우선 산동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흑룡강 출신이 21.4%에 달한다. 다음이 9.9%의 길림성, 7.4%의 사천성, 5.8%의 하북성, 5.5%의 강소성의 순서로 되어 있다. 보다 넓게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으로 구성되는 동북지역 출신이 총 이입자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⁶⁾ 산동성에서 나간 사람들의 가장 많은

4) 5년전 상주지 상황은 상주지와 상주지 유형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한편 상주지는 (1) 같은 縣이나 市, (2) 같은 省의 다른 縣이나 市, (3) 다른 省으로 구분하고, 상주지 유형은 (1) 城市(도시)나 市街지역, (2) 鎮, (3) 鄉으로 구분하고 있다.

5) 산동성의 신고자료에서 구한 5년간의 총이출자(성내+성외)와 총이입자 자료와 센서스의 성의 이입자 또는 이출자와 성내 이동자를 합한 것을 비교하면 센서스 자료의 완전성은 30-35%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센서스 조사에는 귀환이동자가 빠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실제 완전성은 40%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더하여 센서스 자료의 경우 이동의 단위가 현(縣)이나 시(市)가 되어 이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이동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 이동을 단위로 하는 신고자료에 비해 이동이 매우 좁게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센서스의 완전성은 60%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1985-90년의 산동성과 다른 성들 사이의 인구가이동

(가) 이동자수

	이입자			이출자			순이입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북경	10,359	8,109	2,250	44,537	29,957	14,580	-34,178	-21,848	-12,330
천진	3,371	2,411	960	22,195	14,910	7,285	-18,824	-12,499	-6,325
하북	35,118	21,090	14,028	24,971	14,072	10,899	10,147	7,018	3,129
산서	13,866	7,164	6,702	17,165	12,415	4,750	-3,299	-5,251	1,952
내몽고	17,093	8,123	8,970	13,030	7,634	5,396	4,063	489	3,574
요녕	25,062	14,122	10,940	56,515	37,444	19,071	-31,453	-23,322	-8,131
길림	60,559	27,704	32,855	43,661	27,822	15,839	16,898	-118	17,016
흑룡강	130,712	58,869	71,843	86,552	58,558	27,994	44,160	311	43,849
상해	4,170	3,011	1,159	17,448	12,906	4,542	-13,278	-9,895	-3,383
강소	33,393	20,399	12,994	48,808	28,418	20,390	-15,415	-8,019	-7,396
절강	23,768	14,318	9,450	9,684	6,861	2,823	14,084	7,457	6,627
안휘	13,590	8,983	4,607	15,053	9,729	5,324	-1,463	-746	-717
복건	11,841	8,289	3,552	5,030	2,878	2,152	6,811	5,411	1,400
강서	7,312	4,559	2,753	3,345	2,152	1,193	3,967	2,407	1,560
하남	27,584	14,694	12,890	35,013	22,109	12,904	-7,429	-7,415	-14
호북	9,957	5,518	4,439	13,326	10,407	2,919	-3,369	-4,889	1,520
호남	5,454	2,746	2,708	4,200	2,925	1,275	1,254	-179	1,433
광둥	5,208	3,748	1,460	8,495	5,441	3,054	-3,287	-1,693	-1,594
광서	6,977	1,862	5,115	2,149	1,649	500	4,828	213	4,615
해남	1,199	734	465	640	345	295	559	389	170
사천	45,382	9,174	36,208	10,133	7,016	3,117	35,249	2,158	33,091
귀주	17,273	2,786	14,487	3,438	1,873	1,565	13,835	913	12,922
운남	27,510	5,122	22,388	3,202	2,154	1,048	24,308	2,968	21,340
서장	1,986	1,065	921	0	0	0	1,986	1,065	921
협서	21,729	9,378	12,351	12,354	8,186	4,168	9,375	1,192	8,183
감숙	14,994	6,900	8,094	9,774	4,855	4,919	5,220	2,045	3,175
청해	10,720	5,448	5,272	4,452	2,509	1,943	6,268	2,939	3,329
영하	2,487	1,250	1,237	3,624	2,007	1,617	-1,137	-757	-380
신강	20,758	10,386	10,372	16,048	9,685	6,363	4,710	701	4,009
기타	965	872	93	0	0	0	965	872	93
총계	610,397	288,834	321,563	534,842	346,917	187,925	75,555	-58,083	133,638

자료: 〈표 3〉과 같음.

(나) 산동성의 이입자의 기원지와 이출자의 목표지의 분포

	이입비율			이출비율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북경	1.70	2.81	0.70	8.33	8.64	7.76
천진	0.55	0.83	0.30	4.15	4.30	3.88
하북	5.75	7.30	4.36	4.67	4.06	5.80
산서	2.27	2.48	2.08	3.21	3.58	2.53
내몽고	2.80	2.81	2.79	2.44	2.20	2.87
요녕	4.11	4.89	3.40	10.57	10.79	10.15
길림	9.92	9.59	10.22	8.16	8.02	8.43
흑룡강	21.41	20.38	22.34	16.18	16.88	14.90
상해	0.68	1.04	0.36	3.26	3.72	2.42
강소	5.47	7.06	4.04	9.13	8.19	10.85
절강	3.89	4.96	2.94	1.81	1.98	1.50
안휘	2.23	3.11	1.43	2.81	2.80	2.83
북건	1.94	2.87	1.10	0.94	0.83	1.15
강서	1.20	1.58	0.86	0.63	0.62	0.63
하남	4.52	5.09	4.01	6.55	6.37	6.87
호북	1.63	1.91	1.38	2.49	3.00	1.55
호남	0.89	0.95	0.84	0.79	0.84	0.68
광둥	0.85	1.30	0.45	1.59	1.57	1.63
광서	1.14	0.64	1.59	0.40	0.48	0.27
해남	0.20	0.25	0.14	0.12	0.10	0.16
사천	7.43	3.18	11.26	1.89	2.02	1.66
귀주	2.83	0.96	4.51	0.64	0.54	0.83
운남	4.51	1.77	6.96	0.60	0.62	0.56
서장	0.33	0.37	0.29	0.00	0.00	0.00
협서	3.56	3.25	3.84	2.31	2.36	2.22
감숙	2.46	2.39	2.52	1.83	1.40	2.62
청해	1.76	1.89	1.64	0.83	0.72	1.03
영하	0.41	0.43	0.38	0.68	0.58	0.86
신강	3.40	3.60	3.23	3.00	2.79	3.39
기타	0.16	0.30	0.03	0.00	0.00	0.00
총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표 4가>에서 계산.

수가 흑룡강성으로 향했다. 그 비율은 16.2%였다. 다음 10.6%의 요녕성, 9.1%의 강소성, 8.3%의 북경, 8.2%의 길림성, 4.5%의 하남성의 순서로 이출자의 목표지가 분포되어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역시 동북지역이 34.9%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성급 도시인 북경, 천진, 상해로의 이출자는 15.7%를 보인다.

이러한 산동성에서의 인구 이출현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험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산동성의 경우 인구이동이 도시 집중적인 양상을 어느 정도 나타내지만 지배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마도 그 주요 이유로는 인구이동을 크게 억제하는 구실을 하는 중국의 호구제도와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한나라의 인구규모로도 상위에 속하는 개별성의 인구수, 산업화 및 인구이동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입자의 기원지와 이출자의 목표지의 상위 5개 지역 가운데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은 흑룡강성과 강소성의 두 개의 성이다. 그리고 산동성에서의 이출자보다 산동성으로의 이입자가 많은 곳, 즉 인구이동으로 산동성에 인구를 빼앗긴 곳으로는 흑룡강성, 사천성, 운남성, 길림성, 귀주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산동성이 인구를 가장 많이 빼앗긴 곳은 북경시, 요녕성, 천진시, 강소성, 상해시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산동성의 경우 전통적인 인구교환 지역이 있어왔다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인구 이동이 산업화에 따른 지역적 차이의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찰은 아마도 성내 인구이동에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의 이입률과 이출률은 성내 이동과 성간 이동을 합해 계산한 것이다. 이것을 분리하면 성내 이동이 전체 이동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5-나〉 참조). 즉 성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동자의 대부분이 성내 이동자이다. 이를 고려하여 〈표 2〉를 읽으면, 전체인구에 대한 성내 이동의 규모가 1950년대에는 3%를 넘었으나, 1960년대에 급격히 떨어지고, 그 이후 완만하게 성내 이동의 규모가 축

6) 20세기 초반부터 산동성으로부터 동북3성으로의 이동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신중국 건설이후 동북3성의 한족 이주자의 절대적 다수는 가난하고 인구가 조밀한 산동성으로부터 새로이 산림 및 광산 개발이 붐을 이룬 흑룡강성과 기림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최근 지역간 경제사정이 역전되면서 이들의 역이동이 산동성 이입인구의 다수를 이룬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경우 호구 이전이 상대적으로 쉽다.

〈표 5〉 산동성의 지역별 각종 인구이동의 현황, 1992-94

(가) 인구 이동률

	총이입률	성내이입	성외이입	총이출률	성내이출	성외이출	순이입률
1992년도							
합계	1.18	0.98	0.20	1.16	0.96	0.19	0.03
시부	1.47	1.20	0.27	1.26	1.05	0.21	0.21
성시지역	2.30	1.92	0.39	1.70	1.49	0.21	0.60
향촌지역	0.91	0.71	0.19	0.97	0.76	0.21	-0.06
현부	0.95	0.81	0.14	1.07	0.89	0.18	-0.12
진지역	1.41	1.22	0.19	1.19	1.01	0.18	0.22
향지역	0.65	0.54	0.11	0.99	0.82	0.17	-0.34
1993년도							
합계	1.31	1.08	0.23	1.24	1.03	0.21	0.07
시부	1.57	1.25	0.32	1.30	1.05	0.25	0.27
성시지역	2.20	1.78	0.42	1.49	1.25	0.24	0.70
향촌지역	1.16	0.90	0.26	1.17	0.92	0.25	-0.01
현부	1.07	0.92	0.14	1.19	1.00	0.18	-0.12
진지역	1.73	1.53	0.20	1.51	1.31	0.21	0.22
향지역	0.63	0.53	0.10	0.97	0.80	0.17	-0.34
1994년도							
합계	1.43	1.21	0.22	1.39	1.17	0.21	0.04
시부	1.73	1.43	0.30	1.45	1.22	0.23	0.28
성시지역	2.73	2.30	0.43	1.90	1.66	0.24	0.83
향촌지역	1.06	0.84	0.22	1.15	0.92	0.23	-0.09
현부	1.10	0.97	0.13	1.32	1.12	0.20	-0.22
진지역	1.80	1.60	0.19	1.60	1.39	0.21	0.19
향지역	0.60	0.51	0.09	1.11	0.93	0.18	-0.52
1992년도							
청도	1.41	0.94	0.47	0.63	0.43	0.20	0.78
연태	2.67	2.01	0.66	1.26	1.00	0.26	1.41
위해	6.89	5.87	1.02	2.73	2.59	0.15	4.16
1993년도							
청도	1.67	1.10	0.57	0.57	0.32	0.25	1.10
연태	3.15	2.32	0.83	1.19	0.96	0.23	1.97
위해	5.56	3.82	1.74	0.74	0.60	0.14	4.82
1994년도							
청도	1.66	1.07	0.59	0.63	0.37	0.26	1.02
연태	2.99	1.92	1.07	1.37	1.03	0.34	1.62

(나) 총 이입, 이출자중 성내 이입, 이출자의 비율

	성내이입/ 총이입(A)	성내이출/ 총이출(B)	A	B	A	B
총계	83.06	83.34	82.41	82.71	84.49	84.51
시부	81.50	83.21	79.43	80.97	82.44	83.98
성시지역	83.19	87.36	81.10	83.63	84.23	87.53
향촌지역	78.62	78.29	77.41	78.79	79.33	80.04
현부	85.05	83.46	86.58	84.51	87.99	85.15
진지역	86.43	84.54	88.19	86.35	89.25	86.72
향지역	83.14	82.65	83.70	82.64	85.27	83.52
청도	66.73	67.68	65.76	56.53	64.73	58.49
연태	75.29	79.50	73.73	80.71	64.32	75.51
위해	85.22	94.67	68.64	81.03		

(다) 이동자의 지역별 분포(%)

	총이입	성내이입	성외이입	총이출	성내이출	성외이출	순이입
1992년도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시부	45.27	56.22	55.17	61.37	49.38	49.30	49.76
성시지역	18.24	35.49	35.54	35.20	26.79	28.08	20.32
향촌지역	27.03	20.74	19.63	26.17	22.59	21.22	29.44
현부	54.73	43.78	44.83	38.63	50.62	50.70	50.24
진지역	21.25	25.38	26.41	20.32	21.89	22.20	20.31
향지역	33.48	18.40	18.42	18.30	28.73	28.50	29.93
1993년도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시부	48.76	58.29	56.19	68.17	50.97	49.90	56.08
성시지역	19.06	31.91	31.41	34.29	22.94	23.20	21.71
향촌지역	29.71	26.38	24.78	33.88	28.03	26.70	34.37
현부	51.24	41.71	43.81	31.83	49.03	50.10	43.92
진지역	20.27	26.77	28.65	17.99	24.74	25.83	19.53
향지역	30.96	14.93	15.17	13.84	24.29	24.27	24.39
1994년도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시부	51.99	62.99	61.46	71.35	54.35	54.00	56.22
성시지역	20.87	39.92	39.80	40.59	28.53	29.55	22.97
향촌지역	31.11	23.07	21.66	30.75	25.81	24.45	33.26
현부	48.01	37.01	38.54	28.65	45.65	46.00	43.78
진지역	20.11	25.34	26.76	17.57	23.24	23.84	19.92
향지역	27.90	11.67	11.78	11.09	22.42	22.15	23.85

자료: 장아아(1995: 제3장 제2절)에서 재구성.

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크기가 약간 회복되지만 아직도 이동의 수준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내 이동이 산동성의 경제발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중국의 산업현대화가 향진기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향과 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이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조사지의 향진기업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는 김광익 1998과 이근 1998을 참조할 것). 또한 아직 본격적인 대도시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호구제도로 인한 자유로운 이주의 제약에 의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물론 대도시 지역으로 몰리는 공식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유동인구에 대한 고려가 주어진다면 이동의 규모가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아직 본격적인 인구이동의 활성화는 적어도 공식 자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오히려 떨어진 또는 변하지 않은 낮은 이동성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상승의 초기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지조사 지역에서 흔히 관찰된 현상의 하나가 바로 소득이 높아지면 집을 다시 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소득의 사용과 투자가 집체를 통해 통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경제발전이 있는 곳에는 건축이 붐을 이루지만 그것이 인구이동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 전체와 비교할 때 산동성은 1980년 이후에는 경제개발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왔고 그러한 경향이 점점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이동은 중국 평균에 비해 계속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성간 이동이나 성내 이동이나 마찬가지이다. 가령 1990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성간 이동은 중국전체의 70% 수준에 성내 이동은 불과 30% 수준에 머물러 있을 따름이다(〈표 7〉 참조).⁷⁾

4. 이동의 지역성

그러면 과연 이동자들은 도시와 농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 대부분의 개발도

7)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아마도 산동성의 여러 지역의 사회, 경제 및 인구학적 발전의 지역적 차이와 그 유형에 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상국이나 산업화 과정에 있는 사회의 이동의 주 방향은 거의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다. 중국에서 현재 인구이동의 흐름, 특히 유동인구를 민공조(民工潮)⁸⁾로 파악하고 있음도 바로 이러한 경향이 중국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⁹⁾ 산동성의 경우, 중국 전체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민공조가 대부분 신고되지 않는 이동이기 때문이기 이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어렵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1992-94년의 신고자료를 이용해 도시-농촌 사이의 인구의 흐름과 교환에 대한 매우 단편적인 고찰은 가능하다. <표 5>에 제시되어 있는 이동의 흐름을 보면, 우선 성외 이출자의 경우 시지역의 이출률이 현지역에 비해 약간 높다. 그러나 시지역에 속한 도시(성시)지역과 농촌(향촌)지역 사이에는 이출률에 별 차이가 없다. 반대로 현지역에서는 도시성이 강한 진지역과 전형적인 농촌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향지역을 비교하면 전자가 약간 높은 이출률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다른 성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지역유형에 따른 이동자의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하다. 시지역의 이입률이 현지역에 비해 배 또는 그 이상 높고, 이를 다시 세분하면 제일 높은 이입률을 보이는 지역이 시부의 도시지역, 다음이 상당히 떨어지지만 시부의 농촌지역, 그리고 약간 뒤 처져 현부의 도시지역, 마지막으로 다시 상당한 간격을 보이는 현부의 농촌지역이다. 현부의 농촌지역과 시부의 도시지역 사이에는 이입률이 4배 또는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차이도 1992년-94년 사이에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최근에 올수록 성외 이입자의 도시 집중성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5-다> 참조).

성내 이동의 경우에도 이출과 이입 사이에 차이의 유형은 성외 이동과 비슷하다. 우선 이출자가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한가지 차이는 이출 이입 모두에 있어 현부의 도시지역의율이 시의 농촌지역보다 높다. 즉 성내 이동은 그것이 시부이든 현부이든 도시지역에서 더 활발하다. 한편 지역 집중성에 있어서는 성외 이동과 마찬가지로 이입의 경우가 이출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하다. 1992-94년 호구자료에 의하면, 이입 이출 모두에 있어 성내 이동자가 총이동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82%에서 85%의 범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자료의 해

8) 민공조는 농민이 공인이 되는 흐름을 뜻하는 것으로 직업 이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에 의해 주도되어 농촌-도시 이동의 대명사가 되었다.

9) 이러한 현상은 강소성과 절강성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김광역, 1997 참조.

석에 관한 문제가 따르지만, 1990년 센서스 자료의 66-70%와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다. 여하간 산동성의 인구가동은 아직도 성내 이동이 지배적이다. 만약 호구자료의 성내 이동을 호구가 바뀐 경우가 아니라 거주하는 곳의 단위지역이 달라진 경우에 한정시킨다면, 이동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성내 이동의 도시집중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 인구가동의 특성으로 흔히 얘기되는 “땅은 떠나되 고향은 떠나지 않는다(離土不離鄉)”는 현상이(김광역 1998) 이곳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여하간 순이입률을 보면 지역유형에 따른 차이가 매우 명백하다. 우선 인구가동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시부의 도시지역이고 다음이 현부의 도시지역이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시부나 현부를 막론하고 인구를 잃고 있다. 시부 농촌지역의 손실은 미미하나, 현부의 경우 즉 향촌의 손실규모는 비교적 크다. 그리고 1992-94년 사이에도 순이입률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시부 농촌지역이 인구가동으로 인해 인구감소를 보이는 현상은 아마도 적어도 이 때까지 기존 도시지역의 팽창으로 인한 이들 지역의 교외화가 본격화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이동의 유형과 양의 차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의 산업화와 관련된 이동의 활성화 현상은 산동성의 경우 황해 연안의 개발 거점도시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청도(靑島)와 연태(煙台), 위해(威海)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기 독특한 이동유형을 보인다. 이들 도시의 순이동률은 3도시 사이에 차이가 크지만 산동동의 어떤 지역에서 보다는 높다. 즉 이입자가 이출자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한편 이들 3도시 가운데 위해의 이동성과 인구입의 정도가 가장 크고, 청도가 가장 작다. 이들 성시의 인구 100명당 순이입자의 수는 모든 곳에서 산동성 전체에 비해 25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위해는 70배-120배의 순이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산동성 시부 도시지역에 비해서도 최고 7배까지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성외 이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성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출은 산동성 전체 수준에 비해 낮는데 반해 청도의 경우 성외 이입의 수준이, 연태와 위해는 성외 이입에 더하여 성내 이입의 수준이 매우 높는데 기인한다. 특히 위해는 성외 지역으로부터의 이입 인구도 많지만 산동성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인구가 몰려 들어 인구의 빠른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전체 이동자 가운데 성내 이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청

도의 경우 산동성 시부 도시지역에 비해 10-20% 포인트 가량 낮다. 이에 비해 연태는 1992-93년에는 7-8% 포인트 가량 낮다가 1994년에는 20% 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위해는 1992년에는 시부 도시지역보다 약간 높다가 1993년에는 14% 포인트 가량 낮아진다(〈표 5-나〉 참조). 이출자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지만 성 전체의 수준과의 차이의 폭은 이입인구에 비해 좁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중국의 일차적인 이동은 지역성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지역개발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도 다른 성과의 인구교류가 커진다는 것을 이 단편적인 자료를 가지고도 확인 할 수 있다. 아마도 호구조사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동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전반적인 이동의 양상도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5. 인구이동의 이유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80년 이후 산동성의 인구이동이 산업화와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1990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동한 개인들이 무슨 이유로 이동하였는지를 살펴함으로써 이동이 과연 산업화와 어느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가늠하여보자. 이 자료는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의 이입자들에 관한 정보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와 사회변화의 영향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이 자료는 산업화 초기의 현상에 관한 고찰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동의 이유는 성외 이동이나 성내 이동이나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내 이동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학업과 직업 훈련을 위한 것(18.2%)이 꼽히고 있다. 다음이 개인적인 사업이나 일과 연관된 이동(17.5%)이다. 그리고 혼인에 따른 이동, 직장배치, 친척이나 친구를 찾아, 직장 이동, 가족이동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동 이유는 직업관련 이동(직장이동, 직장배치, 일과 사업)과 가족관련 이동(가족이동, 혼인) 및 기타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직업관련 이동이 총 40.4%를, 가족관련이동이 21.9%, 나머지가 37.8%를 보인다. 다른 성으로부터의 이입자의 경우 이동의 이유가 크게 다르다. 우선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이동은 매우 적어 4%에 불과하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이 혼인으로 인한 이동과, 직장이동, 가족이동이다. 그리고 다음이 친척과 친구를 찾아와 일과 사업을 위한 이동으로 되어 있다. 크게 보아 직업관련 이동은 32.9%, 가족관련이동이 39.1%, 기타가 28.0%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산업화 요인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직업관련 이동은 1차적으로 산업화와 관련이 큰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가족이동이나 혼인에 따른 이동은 산업화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별로 없으나, 가족이동이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한 이동의 부산물이라면, 그리고 여자의 배우자 선택에 현대적 부문에서의 직업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배우자의 혼인망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개방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산업화의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업관련 이동의 비중은 남자를 중심으로 살펴 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이동의 이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성내 이동의 경우 남자의 주요 이동이유는 일과 사업, 교육 및 훈련, 직장배치, 직장이동으로 되어 있다. 크게보아 직업관련 이동이 53.6%를 차지한다.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혼인, 친척과 친구의 권유, 일과 사업, 가족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직업관련 이동자의 비율은 총 23.9%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별현상은 다른 성으로부터의 이입자

〈표 6〉 산동성의 각종 이동자의 이동 이유별 분포(%)

	성 내 이 동			성 외 이 동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직장이동	10.61	14.22	6.11	19.15	29.16	10.18
직장배치	12.32	15.81	7.97	4.75	7.61	2.19
개인사업	17.48	23.60	9.85	9.03	13.82	4.74
학교 훈련	18.21	20.54	15.30	3.98	5.99	2.18
친척 친구	11.73	7.26	17.32	12.84	12.79	12.88
은퇴	1.64	2.77	0.23	2.41	4.18	0.82
가족이동	9.06	6.01	12.87	18.56	15.36	21.44
혼인	12.82	1.17	27.35	20.53	0.72	38.29
기타	6.12	8.63	3.00	8.75	10.37	7.29

자료: 중국 국무원인구조사관공실(1993: 제1책 표 1-22)에서 구성.

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이들 남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장이동이고 다음이 가족이동, 일과 사업, 친척 친구를 찾아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직장과 관련된 이동이 50.6%를 구성한다. 여자는 38.3%가 혼인, 21.4%가 가족이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친척, 친구를 찾은 이동과 직장이동으로 되어 있다. 성외 이입 남자 가운데 15.4%의 가족이동자는 아이들과 노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이동자와 부이동자를 구분하면 성외 주이입자의 80% 이상이 산업화¹⁰⁾나 도시화와 관련된 이동자라고 볼 수 있다. 성내 이동자도 교육 및 훈련의 경우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일 것으로 추정된다.

6. 이동자의 인구학적 특성

〈표 7〉에 제시된 1990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985-90년 사이의 성간 이동률은 산동성의 경우 전국 수준에 비해 이입자는 74%에 이출자는 65%에 불과하다. 즉 산동성을 중심으로 볼 때 다른 성으로부터의 이입과 다른 성으로의 이출의 정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중국 전체로 보아 성의 경계를 넘어선 이동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30% 이상 높다. 그러나 산동성에서는 오히려 이입자의 경우는 남자의 이입률이 여자보다 13%가 낮다. 거꾸로 이출률은 남자가 82%나 높다. 결과적으로 성을 경계로 한 이동은 남자 인구에 있어서는 0.15%의 감소를, 여자에게서는 0.36%의 인구증가를, 전체적으로는 0.10%의 인구증가를 가져왔다. 성안에서의 인구이동도 산동성은 중국 전체에 비해 약 70%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동성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녀별로는 양쪽 모두 남자의 이동성이 여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이동인구는 중국 전체나 산동성이냐를 막론하고, 성을 넘어선 이동이나 성안에서의 이동이냐를 막론하고 15세에서 29세까지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높은 이동률은 20-24세에서 관찰되며 다음이 25-29세, 15-19세 집단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집중의 정도는 성을 넘어선 산동성으로의 이입자의 경우 여성의 20-24세에서, 산동성에서 다른 성으로의 이출자는 남성의 20-24세에서 보

10) 향진기업 또는 촌판기업의 발달로 대표되는 농촌의 산업화도 포함됨.

〈표 7〉 산동성과 중국의 연령 및 성별 인구이동률

(가) 산동성

	성간 이입			성간 이출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5세 이상	0.81	0.75	0.86	0.71	0.91	0.50
5-9	0.58	0.56	0.61	0.38	0.36	0.40
10-14	0.69	0.67	0.70	0.34	0.33	0.34
15-19	0.92	0.89	0.95	0.99	1.39	0.59
20-24	1.67	1.27	2.07	1.81	2.55	1.06
25-29	1.16	1.04	1.27	1.11	1.50	0.71
30-34	0.75	0.72	0.79	0.70	0.89	0.50
35-39	0.73	0.75	0.72	0.51	0.60	0.41
40-44	0.66	0.68	0.64	0.38	0.45	0.30
45-49	0.58	0.59	0.56	0.31	0.35	0.28
50-54	0.49	0.57	0.41	0.27	0.31	0.23
55-59	0.35	0.44	0.26	0.24	0.28	0.20
60+	0.30	0.33	0.27	0.33	0.29	0.36
	순이동			성내 이동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5세 이상	0.10	-0.15	0.36	1.57	1.73	1.42
5-9	0.20	0.19	0.21	0.53	0.52	0.54
10-14	0.35	0.34	0.35	0.69	0.69	0.69
15-19	-0.07	-0.49	0.36	2.96	3.29	2.61
20-24	-0.14	-1.28	1.01	4.49	5.19	3.77
25-29	0.05	-0.46	0.57	2.48	2.55	2.40
30-34	0.06	-0.17	0.29	1.02	1.18	0.85
35-39	0.23	0.15	0.31	0.8	0.87	0.73
40-44	0.28	0.22	0.35	0.8	0.76	0.83
45-49	0.27	0.25	0.28	0.77	0.72	0.84
50-54	0.22	0.26	0.18	0.74	0.89	0.58
55-59	0.11	0.16	0.06	0.52	0.66	0.37
60+	-0.03	0.04	-0.09	0.41	0.42	0.41

(나) 중국

	성간 이동			성내 이동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5세 이상	1.09	1.24	0.94	2.27	2.38	2.16
5-9	0.47	0.47	0.47	0.97	0.97	0.96
10-14	0.49	0.49	0.49	1.09	1.11	1.07
15-19	1.49	1.65	1.32	3.47	3.56	3.36
20-24	2.74	3.02	2.44	5.81	5.83	5.79
25-29	1.75	2.09	1.39	3.52	3.64	3.39
30-34	0.99	1.19	0.78	1.83	2.11	1.52
35-39	0.85	0.99	0.69	1.45	1.60	1.30
40-44	0.74	0.86	0.6	1.36	1.47	1.24
45-49	0.60	0.71	0.48	1.18	1.32	1.03
50-54	0.50	0.61	0.36	1.09	1.33	0.82
55-59	0.40	0.51	0.28	0.92	1.16	0.66
60+	0.35	0.38	0.32	0.76	0.83	0.71

(다) 산동성과 중국인구와 이동인구의 중위연령

		남자	여자
산동성	총인구	29.2	29.5
	성간 이입	25.8	24.3
	성간 이출	29.0	29.8
	성내 이동	23.2	23.5
중국	총인구	28.1	28.1
	성간 이동	24.4	23.6
	성내 이동	23.9	23.4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인구통계사 (1993)에서 재구성.

다 뚜렷한 집중성이 나타난다. 산동성 성내 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자에게서 집중성이 강하다. 이동의 곡선은 어떤 경우나 예외없이 20-24세를 정점으로 그 이전에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상승곡선을, 그 이후에는 하강곡선을 보인다. 곡선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정점의 높이에서 발견된다. 이동자의 평균 연령은 전체인구

에 비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5세 이상 인구만을 가지고 계산한 1990년도 중위연령은 중국 전체로는 남녀 각각 28.1세인데 반해, 성 사이의 이동자는 남자 24.4세 여자 23.6세, 성 안에서의 이동자는 남자 23.9세 여자 23.4세였다(〈표 7-다〉 참조).

한편 산동성의 총인구에서는 5세 이상인구의 중위연령이 남자 29.2세 여자 29.5세였다. 그러나 이동자들의 중위연령은 이동유형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다른 곳에서 산동성으로 들어온 이입인구의 경우 남자가 25.8세, 여자가 24.3세를, 산동성을 떠난 이출자의 경우는 남자 29.0세 여자 29.8세로, 성간 이동의 경우 이입자와 이출자 사이에 연령에 상당한 차이가 관찰된다. 이출자에 비해 이입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다. 한편 성내 이동자들의 중위연령은 남녀 각각 23.2세와 23.5세로 어느 이동 집단 보다도 낮다. 한마디로 산동성의 경우 이동유형에 따라 연령구조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아마도 성간 이입자에 비해 이출자의 연령이 상당히 높은 현상은 산동성의 이출자들이 산동성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나 조직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동북 3성에서 흔히 보이는 산동성 출신의 별목 인부들이나(한상복·권태환, 1993; 김광익, 1996) 여러 도시에서 보이는 건축이나 각종 공사 인부들이 그 예에 해당된다.

15세 이상 이동자의 혼인상태는 이미 이동자의 평균 연령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내 이동자와 성외 이입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표 8-가〉에서 보듯이, 성내 이동자는 남자의 경우 약 60% 가량이 미혼이고 여성은 40%가 미혼이다. 이와는 달리 성외 이입자는 남자가 38%, 여자가 17.6%의 미혼률을 보일 뿐이다. 한가지 산동성의 15세 이상 인구의 혼인구조와 비교할 때, 성외 이입 여성은 평균 연령이 5.2세나 낮은데도 불구하고 미혼률이 3% 포인트나 떨어진다. 이점은 이미 이동의 이유에서 성외 여성 이입자들의 주 이동 이유의 하나가 혼인이었다는 관찰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동자 가운데 사별인구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것은 산동성의 1985-90년의 이동이, 특히 성외 이입이, 그리고 여성 이입이 상대적으로 가족중심적 이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동자의 혼인상태별 특성은 미혼자 중심의 이동이 주가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 또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인구이동의 양상과 매우 대조적이다.

〈표 8〉 산동성의 이동인구와 총인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비교

(가) 혼인상태

	성내 이동자			성외 이입자			산동성 총인구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미혼	50.11	58.46	39.57	27.16	38.02	17.62	23.81	26.64	20.94
유배우	47.86	40.10	57.66	70.17	59.77	79.31	69.54	68.87	70.21
사별	1.70	0.99	2.59	2.31	1.71	2.84	6.30	3.94	8.68
이혼	0.33	0.46	0.18	0.36	0.50	0.24	0.36	0.55	0.16

자료: 중국 국무원인구조사관공실(1993: 표11-5와 7-1)에서 구성.

(나) 교육정도

	성내 이동자			성외 이입자			산동성 총인구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무학	6.60	3.38	10.61	11.53	5.12	17.26	20.92	12.62	29.39
소학	18.41	14.53	23.25	31.94	25.43	37.77	41.23	40.31	42.16
초중	37.87	39.25	36.15	31.45	34.26	28.93	28.62	34.99	22.12
고중	11.86	13.62	9.68	12.30	15.72	9.25	6.49	8.44	4.49
중등전업	12.97	13.42	12.40	4.44	6.27	2.80	1.64	2.03	1.25
대전	6.21	7.86	4.14	2.90	4.50	1.48	0.75	1.07	0.41
대학 이상	6.08	7.94	3.76	5.44	8.70	2.52	0.36	0.54	0.18

자료: 중국 국무원인구조사관공실(1993: 표 11-2와 5-1)에서 구성.

7. 이동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이동인구의 차별성은 사회경제적으로도 뚜렷하다. 우선 교육정도에 있어서 일반 주민과 이동자 사이에는 차이가 관찰된다. 이동자와 원주민을 비교하면 이동자의 교육정도가 높다. 그리고 성내 이동자와 성외 이입자 사이에는 성내 이입자의 교육

(다-1) 직업구조

	성내 이동자			성외 이입자			산동성 총인구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총유업인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업 기술	13.77	14.57	12.72	11.49	14.86	8.53	4.51	5.03	3.93
기관장	1.69	2.76	0.30	2.19	4.40	0.25	1.32	2.28	0.22
사무직	5.05	7.48	1.87	6.22	11.33	1.72	1.52	2.30	0.64
상업직	5.26	5.08	5.48	6.36	7.61	5.26	2.07	2.30	1.81
서비스	8.38	6.71	10.57	4.76	4.34	5.13	1.65	1.65	1.65
농림어업	21.78	6.74	41.39	41.97	19.20	62.00	77.05	72.76	81.93
생산 운수업	43.93	56.50	27.55	26.79	37.96	16.95	11.86	13.66	9.80
기타	0.14	0.16	0.11	0.23	0.30	0.16	0.02	0.03	0.02

자료: 중국 국무원인구조사관공실(1993: 표 11-3와 6-1)에서 구성.

(다-2) 경제활동 인구중 비활동자의 사유분포

	성내 이동자			성외 이입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비활동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재학	66.19	74.73	56.07	41.31	55.26	29.07
가사	15.91	0.71	33.92	24.18	1.94	43.70
학교대기	0.47	0.42	0.52	0.83	0.89	0.78
대업	2.15	1.43	3.00	6.62	5.31	7.77
퇴직	5.88	9.57	1.50	16.37	26.29	7.67
능력상실	2.47	1.59	3.51	6.49	5.17	7.64
기타	6.94	11.55	1.48	4.19	5.14	3.36
활동인구비율	66.78	67.72	65.59	79.38	79.40	79.36

자료: 중국 국무원인구조사관공실(1993: 표 6-28)에서 구성.

수준이 훨씬 높다. 성내 이동자의 경우 남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대학 수험자가 12.3%이고, 성외 이입자는 8.3%인데 반해 산동성 전체는 1.1%에 불과하다. 한편 1990년 산동성 전체인구의 62.2%가 소학교 이하 수험자 또는 무학자였다. 그러나 이동자 가운데는 소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

람의 비율은 낮다. 성외 이동의 경우에는 43.5%이고, 성내 이동자는 25.0%에 불과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의 상당 부분은 이동인구의 평균연령이 어리다는 점과 이동인구가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연령 집중성을 보인다는 점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이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교육수준에 따른 이동의 선택성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15-24세 중국 인구 가운데 당시 대학 수험자의 비율은 4%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판단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내 이동에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 잘못이 없을 것이다. 이는 이미 이동이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중등학교 이상, 특히 대학의 경우 교육 자체가 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직장 배치나 그들에게 적합한 직장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세상에 대한 안목이 넓고 사회적 적응성이 높다는 점 등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산동성에서 다른 곳으로 나간 이출자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러한 교육정도의 차별성은 별로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에서 살펴본 이동인구의 지역 및 연령 특성과 산동성 전체인구와의 교육수준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이동인구의 경제활동 양상이 비이동인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8-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동성의 1990년도 15세 이상인구의 유업자 비율은 남자 86.7% 여자 77.2%, 합계 82.0%를 보였다. 이에 비해 성내 이동자는 65-68% 정도로 매우 낮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가운데 학생, 즉 학업을 위한 이동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때문이다. 성외 이입자는 남자는 산동성 전체에 비해 7% 포인트 정도 낮은 비율을, 여자는 2%정도 높은 유업자율을 보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내 이동자와 마찬가지로 남녀 사이에 유업자율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여성의 경우 주부의 역할을 담당한 가족이동자가 많은 대신 상대적으로 학업을 위한 이동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업자의 직업구성의 차이는 이동자와 비이동자 사이에 더욱 뚜렷하다. 1990년 산동성의 15세 이상인구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은 1차산업 종사자, 즉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종사자로 그 비율은 남자 72.7%, 여자 81.9%, 합계 77.1%였다. 다음이 공장근로자로 남자 13.7%, 여자 9.8%, 합계 11.9%를 보였다. 이 둘을 합하면 86%에서 92% 사이에 위치하는 수치가 나온다. 반면 전문 기술직 종사자의 비율은 4-5%, 관리직, 공무원, 상업, 서비스직 종사자는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동자의 직업에서는 이러한 직업의 편중현상은 크게 완화된다. 성내 이동자의 경우

1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 남자는 6.7%에 불과하며 여자도 41.4%로 전국의 수치에 비해 40% 포인트 정도가 낮다. 남자 성내 이동자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직업은 공장 근로자로서 그 비율은 56.5%에 달한다. 여자의 경우도 27.6%의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 다음이 전문직으로 산동성 전체에 비해 약 4배 정도의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상업,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도 모든 경우에 5%를 넘고 있다. 한마디로 직업분포가 보다 다양성을 보이며 직업에 있어서의 탈농현상이, 특히 남성의 경우, 뚜렷하다.

성외 이동자의 직업은 산동성 전체인구와는 물론 성내 이동자와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1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성내 이동자 보다는 상당히 높지만 산동성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매우 낮다. 특히 남성에 경우 차이가 53% 포인트로 매우 크고, 여성에게서는 22% 포인트로 비교적 작다. 남자는 가장 많은 성외 이입자가 공업 노동자이며, 다음이 1차산업 종사자, 전문 기술직 종사자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여자는 압도적으로 1차산업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이 공업 노동자, 전문 기술직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 차이가 뚜렷한 직업은 주로 농업을 의미하는 1차산업 종사자, 공업 노동자, 공무원,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농업, 서비스업은 여성 직종으로, 노동자, 공무원은 남성 직종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산동성 인구에게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즉 이동자들은 비이동자들과 비교할 때 직업에 있어서 선택성을 보이지만, 이동자 집단들을 비교하여 보아도 이동유형에 따라서는 물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강한 직업의 선택성이 나타난다.

8. 맺는 말

이제까지 우리는 산동성의 인구변동과 사회변동의 연관성을 인구이동의 전반적인 추세와 유형을 통해 개괄하였다. 자료의 제한과 중국사회에 대한 이해의 한계로 분석과 논의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인구이동과 사회발전의 관계 대한 몇 가지 의미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산동성은 중국의 어떤 성보다도 높은 인구압력을 경험하여 왔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발전의 정도도 낮은 편이었다. 1970년대 초 인구증가억제 정책이 채택되기

이전에 이러한 높은 인구압력은 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다른 성 특히 동북지방으로 인구이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 출산억제 정책이 채택되면서 매우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나타난다. 즉 자연증가율의 빠른 안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별 관계없이 가난을 동반한 인구압력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발도상사회의 출산력 저하와 인구안정을 설명하는 모형의 하나인 “빈곤화 이론”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둥성은 1980년대에 들어 인구유출 지역에서 인구 유입지역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개혁개방 이후 산둥성이 급속한 발전을 시작하는 때와 일치한다. 산둥성이 다른 성들에 비해 생활수준과 조건이 나아지면서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산둥성 내에서의 인구이동의 규모를 키웠다는 증거는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자료의 문제나 이동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하간 중국 전체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산둥성의 경우도 인구이동의 추세가 자본주의 체제를 채택한 개발도상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구이동으로 인한 대도시의 빈곤도시화나 농촌의 황폐화의 현상은 별로 관찰되지 않는다.

이동의 지역성과 이유, 이동인구의 특성에서는 다른 사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동의 흐름에서 도시 중심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동의 집중성이 도시의 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산둥성에서 가장 큰 도시인 제남과 청도의 인구성장률과 인구이입률이 다른 도시보다 앞서지 않는다. 오히려 급속한 개발이 진행되는 개발 중점도시들로 인구 집중현상이 발생하였다. 개발도상사회의 인구이동의 이유는 크게 보아 경제와 쾌락으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경제와 교육이 중요한 요소였다. 산둥성의 남성은 한국과 유사한 이동의 이유를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다르다. 한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혼전이동이 1960년대에 주를 이루었지만, 산둥성에서는 혼인을 위한 이동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 모형의 차이와 이에 따른 여성 노동 수요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동자의 연령 특성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유형을 따른다. 대개 20대 전반기에 절정을 이루고 그 뒤로 이동성은 약해진다. 그러나 산둥성의 경우 연령별 선

택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다. 그것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이동이 아직 소규모이고 대량이동이 시작되지 않은데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직도 이동이 가족제도에 긴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족이 이동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동자의 혼인상태가 연령을 조정하면 전체 인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데서도 확인된다. 또한 여성의 경우 혼인을 위한 성간 이동이 광범하게 관찰된다.

전반적으로 산동성의 인구추세와 인구이동은 그것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산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자본주의적 발전을 경험한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또는 인구이론에서 얘기하는 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것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중국사회와 산동성의 역사적 배경과 지형학적 배경, 중국 사회주의체제와 경제발전의 특수성이 개재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점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은 이 글의 결정적인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 김광익(1996), “현대중국에서 국가와 사회의 관계: 가(家)와 종족(宗族)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5권 1호.
- _____ (1997), “현대중국의 향진기업의 발전과 소성진의 사회문화적 변화: 지양수성과 저지방성의 조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2호.
- _____ (1998), “현대중국에서 낙후와 발달 그리고 문화”, 《중국의 개혁: 성취와 한계》(중국학회 편, 현대중국연구 제1집), 서울: 21세기북스.
- 이근(1998), “중국 성내(省内) 낙후지구와 발달지구 경제의 비교연구”, 《중국의 개혁: 성취와 한계》(중국학회 편, 현대중국연구 제1집), 서울: 21세기북스.
-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 서울대 출판부.
- 朱維盛·宋安輝(責任編輯)(1994), 《跨世紀的中國人口, 山東卷》,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尹華·林曉紅(編)(1996), 《中國分省 人口 社會 經濟 數據輯》, 北京: 中國人民出版社.
- 庄亞兒(編)(1995), 《中國 人口遷移 蒐据集》, 北京: 中國人民出版社.
- 國家統計局 人口統計司(1993), 《中國人口統計年鑑》, 北京: 中國統計出版社.
- 國務院 人口普查辦公室 國家統計局 人口統計司(1993), 《中國 1990年 人口普查資料》, 北京: 中國 統計出版社.
- Banister, Judith(1987), *China's Changing Populatio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 Liu Zheng, Song Jian and others(1981), *China's Population: Problems & Prospects*, Beijing: Foreign Language Press.

Migration and Its Socioeconomic Implications in Shandong, China

Kwon Tai-Hwan*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change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Shandong, China. The major focus is placed upon the trends and patterns of migration since the 1970s. Official statistics including census results consist of the basic data sourc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features of socioeconomic as well as population change since the 1950s both in China and Shandong, and then analyzes various patterns of migration, such as regional differences, reasons for migration, and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migrants, to examine societal implications of migration.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Demography, Environmental Sociology, Urban Sociology

Major Publications: *Demography of Korea*(1977)

The Trends and Patterns of Mortality and Health in the Republic of Korea(1986)

E-mail: thkwon@promе.snu.ac.kr